

## 통근시간이 직장여성의 결혼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수한\*\*

### 초 록

통근은 맞벌이 여성의 삶의 질과 만족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국 직장인들은 OECD 국가에서 가장 긴 시간을 통근에 사용하고 있지만, 통근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적 분석은 적었다.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수집된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하여 통근시간의 증대가 맞벌이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1,700여 명의 기혼 직장여성을 분석한 이 연구에서 통근시간과 결혼생활 만족은 역(逆) U자형의 관계를 보였다. 통근 시간은 맞벌이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지만, 일정한 시점을 넘어 장시간 통근으로 접어들면 통근시간 증가는 결혼생활 만족도를 감소시킨다. 통근에 43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통근시간이 하루 평균 86분을 초과하면 증가하는 시간만큼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감소했다. 이 연구는 통근이 맞벌이 직장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패널자료를 통한 분석을 통해 학술적, 정책적 기여를 제공한다.

주제어 : 통근시간, 맞벌이 여성, 결혼생활 만족, 완충효과, 여성가족패널

\* 이 글의 초고는 201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됐으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구혜란 선생님의 논평이 논문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되었다. <여성연구> 심사자의 세심한 조언과 논평에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6445).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kimsoohan9@korea.ac.kr)

## I. 서론

통근은 일터와 거주지가 분리되며 나타난 근대적 현상이다. 농업과 소규모 가내수공업이 지배적인 시절에 일터와 집은 동일했으며, 가족의 삶과 일의 경계는 모호했다. 도시 팽창, 교통수단 발달, 교외 지역 개발과 같은 사회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집과 일터를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다(게이틀리, 2016; 비셀, 2019).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을 통근에 사용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1995년 9.6%, 2000년 14.5%, 2010년 15.6%, 2015년 22.5%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통계청, 2019). 한국의 통근시간은 OECD 국가에서 가장 길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통근시간은 28분이지만 한국은 58분이며, 평균 통근시간이 OECD 국가 2위인 일본과 터키보다도 18분이나 더 길다(OECD, 2011).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국에서 통근은 직장인과 그들 가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일상이 되었다.

통근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통근시간 증대는 시간 관리를 어렵게 하고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 특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가진 한국 직장인들에게 장시간 통근은 일-삶의 균형, 가사분담에 많은 영향을 준다. 통근시간과 거리는 성별 및 결혼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기혼여성의 통근시간이 남성에 비해 짧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돌봄과 양육 책임을 더 담당한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혼 여성들은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직장을 선택하거나 여성의 직장과의 근접한 곳에 거주지를 정하기 때문이다(양준석·이상현, 2014; 서미숙, 2016). 서울지역 통근자들에 연구에 의하면 기혼여성은 기혼남성보다 통근시간이 9~10분 정도 더 짧았고, 학령기 자녀 또는 미취학 자녀의 숫자가 많을수록 여성의 통근시간 및 거리가 감소했다(Lee & McDonald, 2003; 전명진·강춘령, 2009). 이처럼 기혼 직장여성들은 통근시간 및 통근거리를 조정하면서 자녀양육, 가사에 대한 책임, 직장 일을 함께 수행하며 살아간다(최성수·주익현, 2019).

통근은 삶의 질과 만족에 어떤 영향을 줄까? 통근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혼재한다. 통근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문헌에 의하면 통근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활동 중에서 행복감이 가장 낮은 활동이며(Kahneman et al., 2004), 통근시간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은 감소한다(Stutzer & Frey, 2008). 통근시간의 증대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통근은 그 자체로도 부정적일 뿐 아니라 노동, 여가, 대인관계, 돌봄과 가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시간을 제약함으

로써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Olsson et al., 2013; Besser, Marcus & Frumkin, 2008).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통근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은 감소할 것이다. 반면, 통근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문헌에 따르면 통근시간의 증대가 삶의 만족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사람들은 통근시간을 활용하여 독서, 음악 감상, 통화,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Jain & Lyons, 2008), 도착지에서 해야 할 일을 미리 구상하고 준비한다(Davies, 2001; Pearce, 2000). 직장인들은 통근이 제공하는 시간 전환의 기회를 통해 일과 집에서 자신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근시간이 맞벌이 직장여성의 결혼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가 기혼 여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여성이 일과 삶의 영역에서 남성보다 훨씬 큰 시간적 제약과 압력을 경험하고, 이로 인하여 경력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Moen, 2003; Jacobs & Gerson, 2004; 조주은, 2008; 차승은, 2010). 이 연구는 통근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수집된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한다. 통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제한된 이론적 관점에 기반을 두었다면 이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이론적 관점을 정리함으로써 통근이 삶의 질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 국내 선행연구가 횡단자료에 의존했다면 이 연구는 1,700여명의 맞벌이 직장여성에 관한 11년에 걸친 종단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 1. 통근의 부정적 효과

통근이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만이 미국 텍사스 거주 직장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대표적이다(Layard, 2011). 카네만의 연구에 의하면 통근은 일상 활동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활동이며 양육, 가사, 직장일보다도 낮은 행복감을 경험하게 한다(Kahneman et al., 2004).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통근은 행복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통근이 유쾌하지 않은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통근을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직장과의 선택을 선택함으로써 통근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실현되기 어렵다. 경제학자 스투처와 프레이는 독일의 사회경제패널자료를 바탕으로 통근시간이 증가할수록 통근자의 행복이 감소하는 ‘통근의 역설’을 관찰하였다(Stutzer & Frey, 2008). 여기서 ‘통근의 역설’이란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장거리 통근을 선택하지만, 통근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질과 건강이 나빠지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음, 교통체증, 주차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낯선 사람들과 불편한 신체접촉을 하고, 교통서비스의 지연과 체증으로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경험한다(Koslowsky, Kluger & Reich, 2013).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통근의 부정적 효과가 관찰된다. 영국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통근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일상 활동의 가치를 낮게 인식하며, 분노 지수가 높다. 특히 출퇴근에 1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복은 이동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했다(Olsson et al., 2013). 중국 대도시 통근자에 관한 연구에서 통근시간 증가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감소시켰고, 통근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 부정적 효과가 훨씬 늘어나는 것이 관찰되었다(Nie & Sousa-Poza, 2018). 영국 가구패널조사를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통근시간의 증대는 통근자의 삶의 만족과 행복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및 배우자에게도 부정적인 효과를 주었다(Roberts, Hodgson & Dolan, 2011).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찰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통근시간이 증가할수록 행복수준이 감소한다(진장익·진은애·김단야, 2017).

인간에게 주어진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제약성을 고려하면 통근시간 증가는 일, 가족 돌봄, 휴식, 교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시간을 감소시킨다. 통근으로 인한 시간부족은 시간에 대한 압박을 심화해 일터와 가정에서 여유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과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통근시간의 증가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Besser, Marcus & Frumkin, 2008). 2007~2014년 3,214명의 여성관리자에 대한 종단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통근시간의 증대는 여성관리자들이 직장에서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어렵게 했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감소시켰다(김수한·안리라, 2018).

## 2. 통근의 긍정적 효과

통근이 행복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적지 않다. 스웨덴 대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근시간 길이(40분 미만, 40~70분, 70분 이상)와 관련이 없이 통근은 삶의 질에 중립적이거나 긍정적 효과를 냈다(Olsson et al., 2013). 미국 보건산업 종사자 1,557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통근시간이 32분 이하인 직장인의 94%가 통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32분을 넘는 통근자 47%도 비슷한 대답을 했다(Wachs et al., 1993). 2001년 샌프란시스코 지역 1,300명의 통근자 조사에서 통근을 즐긴다고 응답한 빈도는 통근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빈도보다 더 많았으며, 통근시간이 '0'으로 줄어들면 좋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Redmond & Mokhtarian, 2001). 2010년 캐나다 시간사용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45분 이상을 통근하는 직장인 중 55%가 통근에 만족했다(Turcotte, 2011). <2016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이용한 연구는 장거리 통근의 부정적 영향은 짧은 근무시간과 높은 소득에 의하여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장거리 통근자들은 적정한 수면시간과 높은 여가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은주·전승봉, 2017).

통근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통근 자체의 유익함과 즐거움에 주목한다(Lyons & Urry, 2005; Jain & Lyons, 2008). 통근을 이용해 독서와 음악 감상 같은 취미를 즐기거나, 친구 및 가족과 통화하거나, 수면이나 휴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Lyons & Chatterjee, 2008). 운전은 포함한 이동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며(Mokhtarian & Salomon, 2001; 게이틀리, 2016), 출퇴근하는 길에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거나 예전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도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통근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수행할 일을 구상하고 준비할 기회를 제공한다(Davies, 2001). 통근이라는 공간이동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도착지에서 할 활동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근이 제공하는 시간 전환의 기회를 통해 직장인들은 일과 집에서 자신이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적절한 통근의 시간과 거리는 일터에서 경험한 스트레스를 잊고 가정에서 자신이 수행할 역할과 정체성을 되찾으며,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Jain & Lyons, 2008). 여성들은 퇴근하는 동안 일터에서 겪었던 부담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가정에 돌아가 해야 할 것들을 계획하면서 통근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Pazy, Salomon & Pintzov, 1996).

아울러 통근은 무엇을 하지 못하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점에서 삶의 휴식이자 피난처이기도 하다. 즉, 직장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가정과 집에서의 일에서 자유로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게 한다(Jain & Lyons, 2008). 이러한 점에서 통근이 반드시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다.

### 3. 통근과 일-가족 경계 넘기

기존 논의들은 통근이 삶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지만, 통근을 물리적 공간을 넘나드는 시간(time)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다시 말해 통근을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공유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확장하여 통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즉, 통근이 가족과 일터라는 상이한 규범, 가치, 행동양식이 작동하는 영역들의 경계를 넘나드는(border crossing) 행위라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Epstein, 2004).

통근은 직장가정 사이의 완충 기능을 담당한다.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출퇴근의 200년 역사를 분석한 한 연구자는 통근의 사회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리는 통근 덕분에 이중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집에서는 배우자이고 부모이고 반항아인 동시에, 일터에서는 효율성의 화신으로서 특유의 초연함과 침착함과 합리성으로 존경받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일터로의 여정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날 얼굴들을 위한 얼굴을 준비하는’ 시간을 부여하고,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거나 특정한 도시에 갇히지 않고 탈주할 수 있게 해준다”(게이틀리, 2016:16). 통근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완충지대를 통해 사람들은 직장가정간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각 영역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근이 제공하는 완충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장가정 밀접한 곳에 거주하는 기혼자를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은 짧은 시간에 집에서 일터로 출근할 수 있고, 일터에서 가정으로 퇴근할 수 있다. 그러나 편리함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과 일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가정의 삶과 직장생활이 이루어지는 활동 범위가 중첩되거나 상호 침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일과 가정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망이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회적 관계의 중첩과 과잉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직장가정에서 살고 지내는 사람을 퇴근 이후의 생활공간에서도 교류하면 사회적 관계가 과도하게 긴밀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는 오히려 사적인 자유로움과 여유를

줄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낳는다(이민아, 2013).

통근이라는 완충지대 역할은 기혼여성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노동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책임과 시간압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행복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flow)하고 있을 때 최상의 행복을 경험한다(칙센트미하이, 1999).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타인에 의하여 쉽게 일이 중단되고, 불편적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행복을 경험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여성의 여가시간은 분절적이고 불편화되는 경향이 있다(Sullivan, 1997; 차승은, 2014; 김진옥·고은주, 2015). 일터와 가정의 거리가 가까운 곳에 거주할 경우 집에서 누리는 여가시간이 직장 영역으로부터 침범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직장일과 가사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두 가지 일을 끊임없이 변경하며 수행할 경우 몰입보다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삶의 질과 만족에 대한 감소로 이어진다(Bittman & Wajcman, 2000).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통근은 일의 영역과 가정의 영역에서 각각 다르게 경험하는 압력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완충지대 역할을 해줌으로써 두 영역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기대가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여성들은 직장과 관련된 일에 몰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육아와 가사와 관련된 일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출근하면서 자녀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등교시켜주는 책임을 맡거나, 근무 중에 자녀와 관련된 일을 챙겨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자녀 돌봄 및 가정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의 업무보다는 가정에 더 관심을 둔다는 오해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Blair-Loy, 2003).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할 경우 퇴근 이후에도 직장에서의 요청 때문에 사생활이 침범당할 수 있다. 갑작스레 회사에 다녀와야 할 수도 있고, 동료 혹은 상사의 부름에 응해야 할 경우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통근의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완충역할에 대한 논의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통근의 효과가 통근시간의 상대적 길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한다. 단시간 통근자는 통근의 긍정적 효과와 완충효과를 통해 삶의 만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통근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통근의 긍정적 효과와 완충효과 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강해서 삶의 만족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통근의 부정적 효과가 장시간 통근자에게 강하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에 근거를 둔다(Olsson et al., 2013; Nie & Sousa-Poza, 2018).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통근시간과 기혼직장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 사이에는 역-U자형 관계가 있을 것이다.

### Ⅲ. 연구자료 및 분석전략

#### 1. 연구자료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수집된 여성가족패널조사(이하 가족패널)를 이용한다. 가족패널은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에 걸쳐 여성의 가족, 가구구조, 일자리 경력에 관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가족패널은 전국 일반가구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표본으로 추출된 9,068가구에 속한 9,997명의 여성이 원표본이다. 원표본 유지율은 2008년 85.2%, 2010년 80.1%, 2012년 75.2%, 2014년 72.6%, 2016년 70.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주재선 외, 2018).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1차(2007년)에서 7차(2018년)까지의 개인용 조사와 일자리용 조사를 결합하여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는 기혼 직장여성이다. 통근하는 기혼 직장여성으로 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목적이 통근이 직장여성의 결혼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은 제외했다. 둘째, 가족패널은 여성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삶의 만족도를 결혼생활에 중점을 두어 측정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행복감, 부부생활 만족도 등에 관한 문항들은 기혼자에게만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가족패널의 특징 때문에 분석대상을 기혼자로 한정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통근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규범적 제약이 일-생활의 균형 및 그와 관련된 삶의 질을 분석하는 데 있다. 비혼자와 기혼자가 경험하는 일-생활의 균형의 제약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기혼자로 제한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된 이유는 한국에서 통근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통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이다(손웅비·장재민, 2019).

이러한 기준으로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700명의 맞벌이 기



혼여성을 분석한다. 분석에 포함된 여성은 평균 45.3세이고, 25.1%가 8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다. 연구 대상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관리·전문직 29.1%, 판매직 17.2%, 서비스직 15.2%, 사무직 15.1%, 육체노동 11.8%, 기술직 8.5% 순이다. 분석에 포함된 여성 중에서 정규직은 33.2%이다. 고용형태를 보면 타인의 회사에 고용된 종사자는 전체의 69.9%이고, 자영업은 21.7%, 가족 혹은 친인척의 회사에 일하는 경우는 4.8%이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와 이에 대한 측정방법은 <표 1>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으며, 각 변수의 기술통계 값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핵심적인 변수의 측정 및 기술통계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표 1> 변수의 측정

| 변수           | 측정 방법  |
|--------------|--|
| 결혼생활 만족도     | “전체적으로 보아 남편과의 요즈음 결혼 생활에 대한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 주십시오”<br>응답: 1=매우 불행하다~10=매우 행복하다  |
| 통근시간         | 일자리로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 (왕복 시간)   |
| 근무시간 (1주)    | 여성 응답자의 총 근무시간 (1주)  |
| 남편 근무시간 (1일) | 남편의 1일 평균 노동시간   |
| 가사노동시간_본인    | 본인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주중 및 주말 평균시간)  |
| 가사노동시간_남편    | 남편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주중 및 주말 평균시간)  |
| 남편 가사분담 만족   | 남편이 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br>응답: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대체로 만족한다, 5=매우 만족한다   |
| 일에 대한 만족도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br>응답: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  |
| 건강상태         | 현재의 건강상태<br>응답: 1=매우 나쁘다, 2=조금 나쁜 편이다, 3=보통이다, 4=대체로 좋은 편이다, 5=매우 좋다   |
| 부부의 공동 여가활동  | “부부가 같이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등 관람하기”<br>“부부가 같이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을 하기”<br>응답: 1=한 달에 한 번도 안했다, 2=달에 한 번, 3=2주에 1번 정도, 4=일주일에 1번 정도, 5=일주일에 2번 이상<br>(두 문항을 합한 평균 값, 크로바하 알파 값=0.55) |
| 정규직          | 정규직=1 / 비정규직 혹은 기타=0   |
| 고용형태         | 임금 종사자, 자영업, 가족·친족 회사  |
| 근속기간         | 현재 직장에서 재직한 기간 (년)   |
| 임금 (log)     | 본인의 월 임금 (log)   |
| 일자리적군        | 육체노동, 전문직/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술직   |
| 가구소득(로그)     | 가구의 1년 소득 (log)  |

| 변수       | 측정 방법  |
|----------|--|
| 남편의 고용상태 | 1=고용, 0=비고용 혹은 실직  |
| 미취학 자녀 수 | 8세 미만 취학 이전의 자녀 수  |
| 초중고 자녀 수 | 초등학교~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수   |
| 교육 수준    | 최종학력<br>1=초등학교 이하, 2=중학교, 3=고등학교, 4=2년 전문대학, 5=4년제 대학교, 6=대학원 이상 |
| 나이       | 조사 당시 연령   |
| 종교       | 종교생활 유무 및 종교가 있는지<br>1=종교 있음, 0=종교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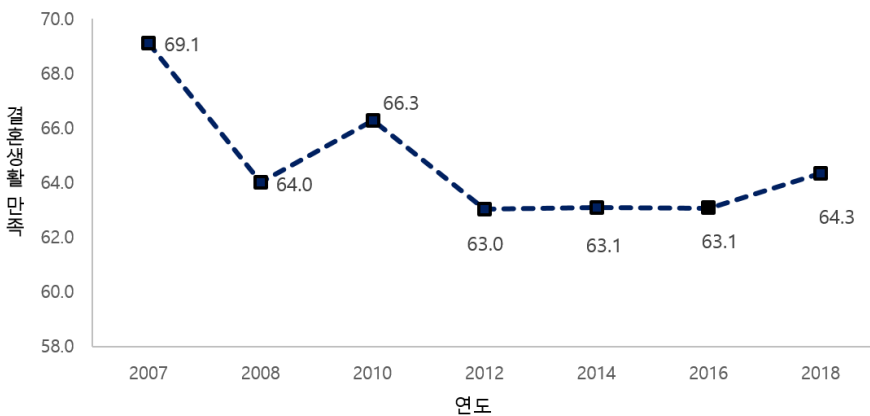
〈표 2〉 기술통계 (N = 7,344)

| 변수                | 평균      | 표준 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결혼생활 만족도          | 64.730  | 19.233  | 0      | 100    |
| 통근시간 (분)          | 50.792  | 38.772  | 0      | 480    |
| 근무시간 (1주)         | 41.024  | 17.144  | 0.5    | 133    |
| 1일 근무시간 (남편)      | 9.215   | 1.937   | 1      | 20     |
|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본인) | 157.056 | 117.937 | 0      | 1440   |
|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남편) | 27.208  | 41.309  | 0      | 514    |
| 남편 가사노동 만족도       | 3.098   | 1.040   | 1      | 5      |
| 일에 대한 만족도         | 3.315   | 0.777   | 1      | 5      |
| 정규직               | 0.332   | 0.471   | 0      | 1      |
| 근속기간              | 3.431   | 5.454   | 0      | 64     |
| 남편 고용상태           | 0.849   | 0.358   | 0      | 1      |
| 임금(log)           | 14.179  | 0.686   | 9.903  | 17.728 |
| 가구소득(log)         | 17.633  | 0.612   | 12.206 | 19.876 |
| 미취학 자녀수           | 0.225   | 0.527   | 0      | 4      |
| 초중고 자녀수           | 0.870   | 0.926   | 0      | 5      |
| 교육수준              | 4.574   | 1.194   | 1      | 6      |
| 나이                | 45.286  | 8.810   | 20     | 74     |
| 종교 있음             | 0.522   | 0.500   | 0      | 1      |
| 건강상태              | 3.737   | 0.771   | 1      | 5      |
| 부부의 공동 여가활동       | 1.748   | 0.889   | 1      | 5      |
| 고용형태_임금 종사자       | 0.699   | 0.459   | 0      | 1      |
| 고용형태_자영업          | 0.217   | 0.412   | 0      | 1      |
| 고용형태_가족·친족 회사     | 0.048   | 0.213   | 0      | 1      |
| 육체노동              | 0.118   | 0.323   | 0      | 1      |
| 사무직               | 0.151   | 0.358   | 0      | 1      |
| 서비스직              | 0.152   | 0.359   | 0      | 1      |
| 판매직               | 0.172   | 0.378   | 0      | 1      |
| 기술직               | 0.085   | 0.280   | 0      | 1      |
| 관리·전문직            | 0.291   | 0.454   | 0      | 1      |

## 2. 변수 및 측정

###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혼 직장여성이 경험하는 결혼생활 만족도이다. 결혼생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남편과의 요즈음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물음으로 측정했다. 이 질문에 대해 1~3차 패널은 1(매우 불행하다)~7(매우 행복하다)의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4~7차 패널은 1(매우 불행하다)~10(매우 행복하다)의 10점 척도로 응답을 구하였다. 응답 척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본 연구는 1~7차년 측정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표준화하였다.



[그림 1] 수도권 거주 맞벌이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 2007년~2018년

2007~2018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맞벌이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4.73점이며 표준편차는 19.23이다. 이는 여성가족패널에 포함된 모든 맞벌이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 평균 64.74점(표준편차=17.88)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7년 69.1점, 2010년 66.3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63~64점 구간에 머물러 있다. 100점이 만점인 것을 생각하면 맞벌이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 없으며, 2007년~2018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림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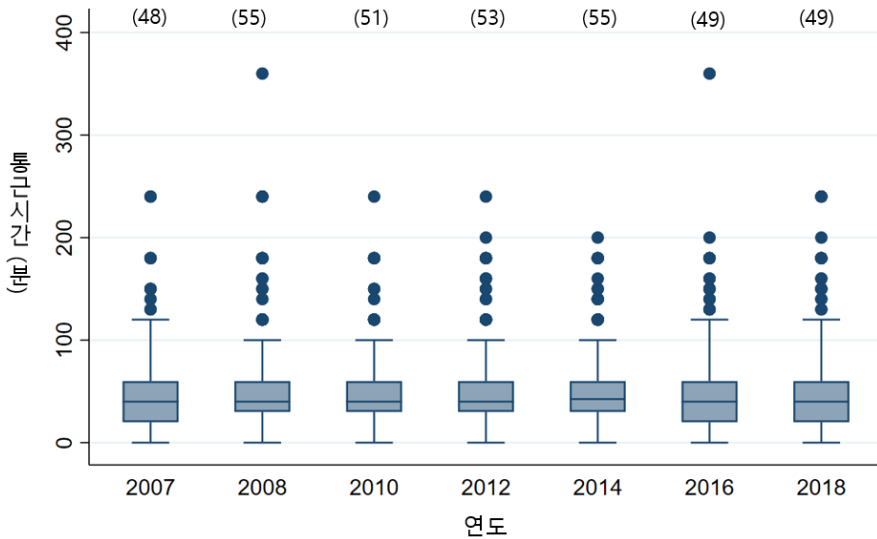
## 2) 설명변수

통근시간은 직장과 집을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분(minute) 단위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초점인 수도권 거주 맞벌이 여성의 하루 평균 통근시간은 50.8분이고, 표준편차는 33.8분이다(〈표 2〉 참고).

[그림 2]는 2007~2018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맞벌이 여성의 통근시간을 박스플롯으로 나타낸 것이다. 2007년에서 2018년 사이 하루 평균 통근시간은 2007년 48분에서 2018년 49분으로 큰 변화가 없다. 2008~2014년 사이의 평균 통근시간이 51~55분으로 증가했지만 2016년 이후 다시 50분 미만으로 감소했다. 2016~2018년 평균 통근시간은 감소했지만 편차는 오히려 증대되었다. 2016년과 2018년의 경우 1사분위(0~25%)에 해당하는 맞벌이 여성의 통근시간은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해당 구간의 편차도 작은 편이다. 하지만 2·3사분위(25~75%)의 통근시간 편차는 이전보다 늘어났다. 특히 4사분위(75~100%)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통근시간 격차는 훨씬 더 증대했다. 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맞벌이 여성들이 통근에 사용하는 시간의 편차가 2014년 이후에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201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가 하루 이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 76분인 것과 비교하면 맞벌이 여성의 통근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sup>1)</sup> 이는 여성의 통근시간이 남성보다 짧다는 일반적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맞벌이 여성의 통근시간이 남성보다 짧다고 해서 통근이 여성에게 미치는 시간압박과 시간빈곤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표 2〉가 보여주듯이 여성이 매일 담당하는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보다 130분 더 길다(여성 157분, 남성 27분).

1) 2007~2014년 조사된 여성관리자패널에 의하면 여성관리자의 통근시간은 평균 87.5분이다(김수한·안리라, 2018). 201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통근시간은 전국 평균 76분이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전체 평균보다 9~15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연구의 분석 대상인 기혼 직장여성의 통근시간이 여성관리자패널 및 생활시간조사 보다 짧은 것은 성별, 고용상 지위, 직급, 결혼 지위 등과 관련이 있다(전명진·강춘령, 2009; 서미숙, 2016; 최현석·이병호, 2017).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기혼자보다 비혼자의 통근시간이 길다.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연도별 평균 값

[그림 2] 수도권 거주 맞벌이 여성의 통근시간, 2007~2018년

### 3) 통제 변수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결혼생활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개별 통제변수의 측정과 기술통계는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통근시간, 노동시간, 가사시간, 여가활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통근 이외의 시간 활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기혼여성 본인의 노동시간 및 배우자의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제약이 증가하여 결혼생활 만족이 감소할 수 있다. 가사분담은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이여봉, 2010). 남편의 가사분담은 여성의 가사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결혼생활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유계숙, 2010).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인의 가사노동시간,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배우자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 등을 통제하였다. 부부의 공동 여가활동을 통제했는데, 일반적으로 공동 여가활동의 횟수가 빈번할수록 결혼만족은 높아진다(이여봉, 2010).

가구의 경제적 상황, 본인의 직무, 배우자의 취업상태 등의 영향도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간 가구소득, 배우자 고용여부, 본인의 고용지위(정규직 여부) 및 직무유형, 일에 대한 만족도, 근속연수, 고용형태(임금 종사자, 자영업,

가족·친족 회사) 등을 통제하였다. 미성년 자녀의 존재도 부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취학 자녀수와 초중고 자녀수를 각각 모델에 포함했다. 그 이외에 나이, 종교,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 결혼생활 및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변수들을 통제했다.

### 3. 분석모델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동일한 사람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이 이루어진 패널자료이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최대 7회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다. 횡단자료와는 달리 패널조사는 동일한 대상과 변수를 반복적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일반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을 통한 회귀분석을 이용할 수 없다. 패널조사에 참여한 동일한 사례 간에 자기상관의 문제가 발생하며, 반복 측정으로 인하여 사례 간의 군집 클러스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개별 사례들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OLS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연구는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s)을 이용하였다(Allison, 2009).<sup>2)</sup>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TATA 15이고, 명령어는 streg이며 동일한 개인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통제하였다.

## IV. 분석결과

〈표 3〉은 통근시간이 기혼 직장여성의 결혼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모델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은 통근시간을 제외한 통제변수를 모델에 포함시킨 것이다. 모형2는 통제변수에 통근시간을 추가한 것으로 통근시간과 결혼생활 만족도 사이의 선형관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모형3은 통근시간 제곱을 추가한 모형으로서 통근시간과 결혼생활 만족도 사이의 역(逆) U자의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모형1~모형3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 큰 변화가 없다.

모형2가 보여주듯이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통근시간의 증대는 기혼 직장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건강상태, 부부의

2)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과 비교하여 모델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Hausman Test를 통해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여가활동, 종교, 근무시간, 가사노동, 남편의 가사분담만족, 자녀, 가구소득, 고용지위, 직무만족, 교육수준, 나이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통근시간이 길어질수록 맞벌이 여성이 경험하는 결혼생활 만족도는 줄어든다. 집과 직장을 왕복하는 통근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결혼생활 만족도는 1.657정도 감소한다(모형2). 이 결과는 통근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만족 및 부부관계 만족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Stutzer & Frey, 2008; 진장익·진은애·김단야, 2017; Lorenz, 2018).

모형3은 보다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즉, 통근시간 제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차항의 지수가 -1.152로서 음의 값을 가진다. 이는 통근시간과 결혼생활 만족도 사이에 역(逆) U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통근시간이 짧을 때는 통근이 맞벌이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증가시켜주지만, 통근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결혼생활 만족이 감소한다.

〈표 3〉 통근시간이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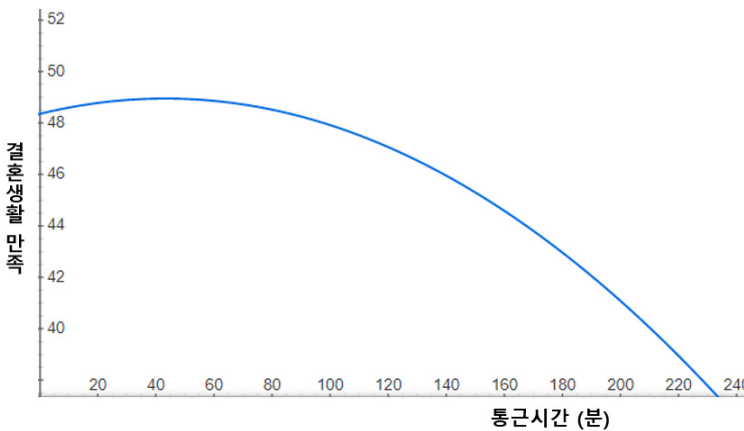
| 변수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 통근시간          |                     | -1.657*<br>(0.734)  | 1.660<br>(1.740)    |
| 통근시간(제곱)      |                     |                     | -1.152*<br>(0.548)  |
| 근무시간_본인 (1주일) | 0.012<br>(0.028)    | 0.005<br>(0.041)    | 0.004<br>(0.041)    |
| 근무시간_남편 (1일)  | 0.565**<br>(0.212)  | 0.847***<br>(0.250) | 0.864***<br>(0.249) |
| 가사노동시간_본인     | 0.005<br>(0.003)    | 0.005<br>(0.004)    | 0.005<br>(0.004)    |
| 가사노동시간_남편     | -0.014<br>(0.009)   | -0.014<br>(0.010)   | -0.014<br>(0.010)   |
| 남편 가사노동 만족도   | 2.954***<br>(0.376) | 2.830***<br>(0.428) | 2.840***<br>(0.428) |
| 부부의 공동 여가활동   | 1.781***<br>(0.405) | 1.998***<br>(0.456) | 1.989***<br>(0.455) |
| 연간 가구소득 (log) | 3.110***<br>(0.881) | 4.341***<br>(0.994) | 4.399***<br>(0.994) |
| 미취학 자녀수       | -1.101<br>(0.987)   | -1.184<br>(1.077)   | -1.211<br>(1.076)   |
| 초중고 자녀수       | -0.208<br>(0.581)   | -0.373<br>(0.660)   | -0.398<br>(0.659)   |

| 변수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 나이 (본인)       | -1.848<br>(4.014)   | -1.584<br>(3.920)   | -1.552<br>(3.916)   |
| 종교 있음         | 0.471<br>(0.829)    | 0.319<br>(0.955)    | 0.358<br>(0.954)    |
| 건강상태 (본인)     | 0.694<br>(0.461)    | 0.650<br>(0.529)    | 0.682<br>(0.529)    |
| 교육수준 (본인)     | -0.655<br>(3.838)   | -1.438<br>(4.160)   | -1.393<br>(4.156)   |
| 남편 고용상태       | -0.264<br>(1.056)   | -0.107<br>(1.205)   | -0.154<br>(1.204)   |
| 정규직           | 0.361<br>(1.299)    | 0.475<br>(1.355)    | 0.480<br>(1.354)    |
| 일에 대한 만족도     | 0.918*<br>(0.462)   | 0.865<br>(0.537)    | 0.892<br>(0.536)    |
| 근속기간          | -0.092<br>(0.115)   | -0.047<br>(0.149)   | -0.032<br>(0.149)   |
| 임금 (log)      | -0.340<br>(0.833)   | -0.816<br>(1.177)   | -0.970<br>(1.178)   |
| 고용형태_자영업      | -0.649<br>(1.738)   | -1.973<br>(2.972)   | -1.620<br>(2.974)   |
| 고용형태_가족·친족 회사 | 3.288<br>(5.920)    | -8.188<br>(20.444)  | -7.262<br>(20.429)  |
| 사무직           | 0.450<br>(2.683)    | -1.226<br>(2.946)   | -1.344<br>(2.944)   |
| 서비스직          | -0.689<br>(2.332)   | -5.480*<br>(2.787)  | -5.569*<br>(2.784)  |
| 판매직           | 3.649<br>(2.352)    | 4.787<br>(2.894)    | 4.651<br>(2.892)    |
| 기술직           | -2.943<br>(2.649)   | 1.350<br>(2.979)    | 1.098<br>(2.979)    |
| 관리 및 전문직      | 3.783<br>(2.418)    | 2.994<br>(2.859)    | 2.801<br>(2.858)    |
| 연도_2008년      | -4.578<br>(4.192)   | -5.786<br>(4.169)   | -5.783<br>(4.165)   |
| 연도_2010년      | 1.533<br>(12.095)   | 0.396<br>(11.841)   | 0.120<br>(11.830)   |
| 연도_2012년      | 1.282<br>(20.090)   | -0.510<br>(19.627)  | -0.874<br>(19.609)  |
| 연도_2014년      | 3.756<br>(28.101)   | 1.960<br>(27.437)   | 1.504<br>(27.412)   |
| 연도_2016년      | 6.211<br>(36.116)   | 4.104<br>(35.248)   | 3.562<br>(35.216)   |
| 연도_2018년      | 11.459<br>(44.102)  | 8.874<br>(43.038)   | 8.208<br>(42.999)   |
| 상수            | 72.439<br>(157.648) | 50.217<br>(152.440) | 48.351<br>(152.297) |
| 관찰수           | 3,984               | 3,192               | 3,192               |
| 개인수           | 1,524               | 1,366               | 1,366               |
| R-squared     | 0.095               | 0.104               | 0.106               |

주: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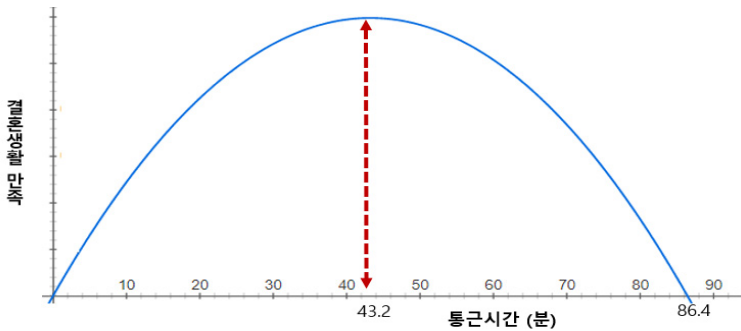


[그림 3]은 모형3의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이 그래프는 통근시간 증가와 결혼생활 만족은 단순 선형(linear) 관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통근시간이 길지 않은 구간에서는 통근시간이 증가할수록 맞벌이 여성이 경험하는 결혼생활 만족도가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통근시간의 증가는 결혼생활 만족도를 감소시킨다. 통근시간과 결혼생활 만족도 사이에 역 U자형 관계가 있음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통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된 통근시간의 범위 안에서 발생하며, 장시간 통근자의 경우 통근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는 명확하다.



[그림 3] 통근시간과 맞벌이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

통근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는 시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어떤 시점부터 부정적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그림 4]는 [그림 3]에서 통근시간이 90분 이하인 구간을 확대한 것이다. [그림 4]는 맞벌이 여성이 경험하는 결혼생활 만족도가 증가에서 감소로 변화하는 시점을 보여준다.



[그림 4] 통근이 결혼생활 만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간

통근과 결혼생활 만족도 사이의 변곡점은 왕복 43.2분(편도 21.6분)이다. 왕복 43.2분을 통근하는 맞벌이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다. 이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통근시간이 길어질수록 결혼생활 만족도는 증가하며, 통근시간이 43.2분을 초과하면 통근이 가져다주는 만족도는 감소한다. 그렇다고 통근의 긍정적 효과가 곧바로 부정적 효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통근에 86.4분(대략 1시간 30분) 이하를 사용하는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통근시간이 0인 경우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왕복 86.4분(편도 43.2분)을 넘지 않는다면 통근은 맞벌이 여성의 결혼생활에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왕복 통근시간이 86.4분(1시간 23분)을 초과하면 통근시간이 증가할수록 결혼생활 만족도는 더 감소한다([그림 3]과 [그림 4] 참고). 이 발견은 장거리 통근자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영국 통계청 자료를 통한 분석에서 출퇴근에 1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통근시간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이 감소했으며(Olsson et al., 2013), 중국 대도시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통근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 부정적 효과가 훨씬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Nie & Sousa-Poza, 2018).

흥미로운 점은 20분 미만을 통근하는 여성보다 30분~60분 통근하는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통근에 더 긴 시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기존 연구를 통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통근이 제공하는 완충효과이다. 통근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 완충지대의 기능을 함으로써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와 직장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가 얽히고 증첩되는 것을 줄여준다. 집과 직장이 가까울 경우에는 이러한 완충효과가 제공하는 이점을 경험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통근이 가져다주는 기분전환과 역할전환의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적정한 통

근시간은 일터에서의 스트레스와 감정을 완화시키고, 가정에 돌아가서 자신이 담당할 역할과 일을 마음속으로 준비할 기회를 제공한다(Davies, 2001; Jain & Lyons, 2008). 통근시간이 짧은 맞벌이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와 자녀돌봄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면(Lee & McDonald, 2003; 전명진·강춘령, 2009), 편도 10분 미만을 통근하는 여성들은 직장 일을 마치고 곧바로 가사를 담당하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자. 선행연구와는 달리 맞벌이 여성과 배우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결혼생활 만족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결혼생활 만족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1~모형3).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빈번할수록 결혼생활 만족도 역시 증가하는데, 이 결과도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 맞벌이 여성의 노동시간은 결혼생활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했지만, 남편의 노동시간 증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는 남편의 1일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분담에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가구소득의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연간가구소득이 증대할수록 맞벌이 여성이 경험하는 결혼생활 만족은 높아진다(모형1~모형3). 그 이외에 미취학 자녀 수, 초중고 자녀 수, 연령, 남편의 고용상태, 근속연수, 직무만족도, 교육수준, 본인의 고용형태 등이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 V. 결론 및 논의

장시간 노동이 일상이 된 한국의 직장인들은 OECD 국가에서 가장 긴 시간을 통근에 사용한다. 통근에 관한 정책적 논의와 학술적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 국내 선행연구는 성별, 결혼지위, 직종, 거주지역에 따른 통근시간의 차이와 통근패턴에 초점을 두었다. 통근이 삶의 만족과 일·가족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제한적이며, 통근이 삶의 만족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해외 연구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혼재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수집된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하여 통근시간의 증대가 맞벌이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1,700여 명의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근시간과 결혼생활 만족은 역 U자형의 관계를 보였다. 통근시간 증가는 맞벌이 여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지만, 일정한 시점을 넘어 장시간 통근으로 접어들면서 통근시간의 증가는 결혼생활 만족도를 감소시킨다.

단시간 통근자에게 통근시간이 늘어날수록 결혼생활 만족도는 향상되었다. 통근에 40~50분을 사용하는 맞벌이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이 20분을 통근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근이 단순히 직장과 가정을 왕복하는 물리적 이동의 차원을 넘어 사회심리적 행위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통근은 기업조직과 가족이라는 상이한 규범이 지배하는 제도의 영역을 넘나드는 행위이며(Epstein, 2004), 두 영역의 상호침범을 줄이는 완충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통근을 이용하여 일터에서 경험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리 구상하기도 하고, 직장인에서 배우자 혹은 부모로 역할을 전환하는 시간을 보낸다(Jain & Lyons, 2008; 게이틀리, 2016). 집과 직장이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경우에 통근이 제공하는 기분전환과 역할전환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오히려 단거리 통근을 하는 기혼여성의 경우에 돌봄과 가사에 대한 부담을 많이 담당하고, 남성 배우자는 가사분담에 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전명진·강춘령, 2009; 양준석·이상현, 2014).

장시간 통근은 맞벌이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수도권 거주 맞벌이 여성에게 통근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26분을 초과할 경우 증가하는 시간만큼 결혼생활 만족은 감소했다. 이 결과는 통근시간이 삶의 질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지만, 이 연구와 선행연구 사이에 중요한 차별점이 존재한다. 즉, 통근의 부정적인 효과는 시간 및 거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통근은 고통스러운 활동이며, 통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삶의 다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편도 43분을 초과하는 통근자에게 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집과 가정이 너무 먼 경우 두 경계를 넘나드는데 소요되는 물적, 심리적 제약과 시간부족이 증대함으로써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돌봄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주로 담당하는 한국의 기혼여성들에게 장시간 통근은 시간부족을 심화시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을 경험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연구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장시간 통근자의 어려움을 줄여줄 다양한 정책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대중교통망 확충, 스마트 워크 센터, 혼잡한 시간을 피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도 확대 등은 통근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활용도가 높아진 재택근무

와 비대면회의가 일상적인 근무방식으로 정착된다면 통근하는 횟수를 줄이고 장시간 출퇴근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일과 삶에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직원에게 근무 스케줄을 예측가능하게 하고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면 통근으로 인한 시간제약을 줄이고, 일과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Kelly, Moen & Tranby, 2011; Schneider & Harknett, 2019).

가사와 돌봄에 대한 성역할 인식의 변화, 남녀 간 가사노동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부담이 훨씬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늘었다는 최근 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김영란, 2020).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는 여성들에 관한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은 업무와 집안일을 병행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두 개의 일터가 하나로 묶인”것 같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근하고 싶다”고 한다(배진경, 2020: 30-31). 이러한 연구는 가사와 돌봄노동과 관련된 성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재택근무는 맞벌이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연구가 가진 한계와 향후 과제를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남성 배우자의 통근시간이 결혼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다. 여성이 경험하는 결혼생활 만족도는 본인의 통근시간 뿐 아니라 남성 배우자의 통근시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패널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분석에 사용할 수 없었다. 여성과 남성 배우자 중에서 통근이 주는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누구인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통근시간뿐 아니라 통근수단과 통근의 구체적인 경험도 고려해야한다. 지하철, 기차, 좌석버스, 자가용 등 이용하는 수단에 따라 통근의 경험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혼잡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에 통근하느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에 통근을 하는가도 고려할 사항이다.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는 통근의 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최근 공개된 <2019년 생활시간조사>는 통근을 포함한 구체적인 일상활동, 시간사용에 관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한계점을 해결하는데 유용할 것이다(통계청, 2020). 이 연구는 결혼생활 만족도에 초점을 두어 통근시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과 관련하여 여성가족패널이 제공하는 가장 장기적인 관찰이기 때문이다. 대안적인 자료와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통근의 영향에 관한 이 연구가 직무만족, 행복, 건강, 이웃과의 관계 등과 같은 영역에서도 재현되는가에 관한 후속연구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게이틀리, 이언(2016). *출퇴근의 역사*. 박중서(역). 서울: 책세상(Gately, Iain, *Rush Hour: How 500 Million Commuters Survive the Daily Journey to Work*. Head of Zeus, 2014).
- 고은주·전승봉(2017). “경기도민의 통근시간과 삶의 질: 생활시간 및 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제19권 제3호. 25-49.
- 김수한·안리라(2018). “여성관리자의 시간제약과 직장 내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제52권 제1호. 39-75.
- 김영란(2020). “코로나 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 정책 의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36.
- 김진옥·고은주(2015).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42권 제2호. 135-161.
- 배진경(2020). “성평등 노동과 ‘돌봄 뉴딜’을 위한 제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19-40.
- 비셀, 데이비드(2019). *통근하는 삶*. 박광형·전희진(역). 서울: 도서출판 앨피 (Bissell, David, *Transit Life: How commuting is transforming our cities*. MIT Press, 2018).
- 서미숙(2016). “성별에 따른 통근시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시간조사 (Korean Time use Survey)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제18권. 5-36.
- 손웅비·장재민(2019). “수도권의 통근시간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GRI 연구논총*. 제21권 제2호. 97-116.
- 양준석·이상현(2014). “왜 여성의 통근시간은 짧은가? 성별 통근시간 차이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161-184.
- 유계숙(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제1호. 41-69.
- 이민아(2013).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U 자형 관계와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한국사회학*. 제47권 제4호. 171-200.
- 이여봉(2010).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제33권 제1호. 103-131.
- 전명진·강춘령(2009). “수도권 맞벌이 가구의 통근통행 행태 분석”. *국토계획*. 제44권 제3호. 193-206.

- 조주은(2008). “압축적 시간성을 통한 ‘바쁨’: 서울지역 중간계급 유배우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4권 제3호. 211-242.
- 주재선·김영란·정성미·송치선·한진영·이진숙·윤자영(2018). 201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진장익·진은애·김단야(2017). “서울시 직장인들의 통근시간과 행복”. *국토계획*. 제52권 제2호. 99-116.
- 차승은(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제33권 제1호. 27-49.
- \_\_\_\_\_(2014). “유급노동시간, 시간압박감 그리고 휴식의 효과”. *한국인구학*. 제37권 제3호. 25-52.
- 최석현·이병호(2017). “노동시장 공간의 이중구조화와 불평등: 수도권 거주 임금근로자 통근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51권 제2호. 63-94.
- 최성수·주익현(2019). “시간은 돈이다?: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 통근시간의 계층화”. *한국인구학*. 제42권 제1호. 1-31.
- 칙센트미하이, 미하이(1999). *몰입의 즐거움*. 이희재(역). 서울: 해냄 (Csikszentmihalyi, Mihaly, *Finding Flow: The psychology of engagement with everyday life*. Basic Books, 1997).
- 통계청(2019). 인구총조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0>에서  
 2020년 12월 15일 인출.
- \_\_\_\_\_(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년 7월 30일).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bmode=read&aSeq=384161&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bmode=read&aSeq=384161&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20년 9월 10일 인출
- Allison, P. D.(2009).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 (Vol. 160). SAGE publications.
- Besser, L. M., Marcus, M., & Frumkin, H.(2008). Commute time and social capital in the U.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4(3), 207-211.
- Bittman, M., & Wajcman, J.(2000).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79(1), 165-189.
- Blair-Loy, M.(2003). *Competing Devotions: Career and Family among Women Executiv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avies, K.(2001). Reflections over timespace. *Timespace: Geographies*

- of temporality*, 13, 133.
- Epstein, C.(2004). Border crossings: The constraints of time norms in transgressions of gender and professional roles. In C. Epstein & A. Kalleberg(Eds.). *Fighting for Time*(pp. 317-340). Russell Sage Foundation.
- Jacobs, J. A., & Gerson, K.(2004). *The Time Divide*. Harvard University Press.
- Jain, J., & Lyons, G.(2008). The gift of travel time.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6(2), 81-89.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A., Schwarz, N., & Stone, A.(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306(5702), 1776-1780.
- Kelly, E. L., Moen, P., & Tranby, E.(2011). Changing workplaces to reduce work-family conflict: Schedule control in a white-collar organ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2), 265-290.
- Koslowsky, M., Kluger, A. N., & Reich, M.(2013). *Commuting Stress: Causes, Effects, and Methods of Coping*. New York: Springer.
- Layard, R.(2011).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Penguin.
- Lee, B. S., & McDonald, J. F.(2003). Determinants of commuting time and distance for Seoul residents: The impact of family status on the commuting of women. *Urban Studies*, 40(7), 1283-1302.
- Lorenz, O.(2018). Does commuting matter to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66(C), 180-199.
- Lyons, G., & Chatterjee, K.(2008). A human perspective on the daily commute: Costs, benefits and trade-offs. *Transport Reviews*, 28(2), 181-198.
- Lyons, G., & Urry, J.(2005). Travel time use in the information ag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39(2-3), 257-276.
- Moen, P. ed.(2003). *It's About Time: Couples and Careers*. Cornell University Press.
- Mokhtarian, P. L., & Salomon, I.(2001). How derived is the demand for travel? Some conceptual and measurement consideration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35(8),



695-719.

- Nie, P., & Sousa-Poza, A.(2018). Commute tim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urban China. *China Economic Review*, 48, 188-204.
- OECD(2011). Commuting time: Minutes per day, persons in full-time employment. In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 Olsson, L. E., Gärling, T., Ettema, D., Friman, M., & Fujii, S.(2013). Happiness and satisfaction with work comm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1(1), 255-263.
- Pazy, A., Salomon, I., & Pintzov, T.(1996). The impacts of women's careers on their commuting behavior: A case study of Israeli computer professional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30(4), 269-286.
- Pearce, L.(2000). *Devolving Identities: Feminist Readings in Home and Belonging*. Routledge.
- Redmond, L. S., & Mokhtarian, P. L.(2001). The positive utility of the commute: modeling ideal commute time and relative desired commute amount. *Transportation*, 28(2), 179-205.
- Roberts, J., Hodgson, R., & Dolan, P.(2011). "It's driving her mad":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commuting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0(5), 1064-1076.
- Schneider, D., & Harknett, K.(2019). Consequences of routine work-schedule instability for worker health and well-be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4(1), 82-114.
- Stutzer, A., & Frey, B. S.(2008). Stress that doesn't pay: The commuting paradox.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0(2), 339-366.
- Sullivan, O.(1997). Time waits for no (wo)man: An investigation of the gendered experience of domestic time. *Sociology*, 31(2): 221-239.
- Turcotte, M.(2011). Commuting to work: Results of the 2010 general social survey. *Canadian Social Trends*, 92(August), 25-36.
- Wachs, M., Taylor, B. D., Levine, N., & Ong, P.(1993). The changing commute: A case-study of the jobs-housing relationship over time. *Urban Studies*, 30(10), 1711-1729.

Abstract

## The Effects of Commuting Time on Employed Women's Marital Satisfaction

Soohan Kim\*

Korean workers spend the longest time in commuting in OECD countries, but there has been little study on the impact of commuting on life satisfaction. Using a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collected from 2007 to 2018,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ommuting time on 1,700 employed women's marital satisfaction. I find an inverted-U shap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ting time and satisfaction with marriage. While commuting time improves the satisfaction of a dual-income woman's marriage life, the increase in commuting time decreases the satisfaction of the marriage life as commuting time exceeds a certain point. Women who commute about 43 minutes have the highest satisfaction with marriage, and when commuting time exceeds an average of 86 minutes per day, satisfaction with marriage decreases as the commuting time increases.

**Keywords :** commuting time, marital satisfaction, employed women, work and family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